

선학원 이사진 제적원 제출 결의 3월 26일 임시 이사회서

조계종 중앙총회가 선학원의 권리를 보장한 총무원법 제24조를 삭제한데 대해 선학원이 이사진 전원 조계종 제적원 제출이라는 강수를 쳤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박진)은 3월 26일 서울 안국동 중앙선원 2층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제적 11인 가운데 10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이사회는 종단과의 현안문제 중 법인법과 관련한 논의의 결과 임원진 전원이 제적원을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이사장 및 사직 이사를 포함한 11명 이사 전원과 감사 스님 2인 등은 즉석에서 제적원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처리에 대해서는 이사장 스님에게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학원 이사회는 법인법과 관련한 성명서와 수석사 관련 이사회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선학원 이사회는 '법인법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문'을 통해 법인법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으며, 수석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정혜사와 간월암을 원상회복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신성민 기자

韓中日 불교도 세계평화 기원한다

제17차 한중일불교교류대회 11월 18~20일 도라산 전망대

한국, 중국, 일본 불교의 우의를 다지기 위한 제17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가 오는 11월18일부터 20일까지 파주 도라산전망대 등지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중국불교협회, 일중환 국제불교교류협회는 3월 26일 서울 진관사 합설당에서 제17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예비회의를 갖고 일정과 장소, 주제 등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17차 대회를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첫째날인 11월18일에는 환영만찬, 11월19일에는 민간인출입통제선 내 도라산 전망대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와 '불교사상에서의 평화의 실현'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평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한중일 삼국불교계는 제9차 한중수행교류단 교류를 오는 8월22일부터 29일까지 중국에서 40명 규모로 진행하고, 한일수행교류단 교류사업은 올해에는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예비회의는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과 중국불교협회 수석부회장 학성 스님 등 한중일 불교계 지도자 25명이 참가했다. 신성민 기자

총무원장 선거 변화 해법 나오나

조계종 총무원 4월 16일 공청회... 선거 개선 방안 논의

조계종 현안 중 하나인 '총무원장 직선제'에 대한 의견 수렴과 실효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조계종 기획실은 3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를 오는 4월 1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총무원장 선거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비롯해 선거법 관련 입법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열린다.

조계종 선거 제도 개선은 해묵은 과제 중 하나이다. 이미 2012년 10월 조계종 쇄신위원회가 '총무원장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고, 이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한 바 있다.

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 역시 주요 공약으로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변화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34대 집행부는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가 직접 나서 관련 공청회를 여는 것은 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반증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되는 방안은 △집행부가 제시한 준직선제 △완전 직선제

△원로회의가 제안한 선거인단 축소 △결사추진본부의 제안인 선추천, 후선출 등 4가지이다.

준직선제는 4,000명 규모로 비구는 대덕이상, 비구니는 비구 선거인단의 25%로 배정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비구는 3,036명, 비구니는 559명으로 총 3,795

**34대 집행부 준직선제 방안부터
완전 직선제 시행·선거인단 축소
쇄신위 先추천 後선출안 등 논의
공청회까지 사전의견 접수 받아
"종도들 의견모아 6월 종헌 개정"**

명 선거인단에 참여하게 된다.

10,000명 규모의 완전 직선제는 구족제를 수지하고 분한신고를 마친 비구 및 비구니를 전체를 선거인으로 선거가 진행된다. 선거인 수는 비구 5,602명, 비구니 5,281명 총 10,883명이다.

원로회의가 제시한 선거인단 축소 방안

은 교구본사 주지 25명과 종회의원 81명만 참여하는 것으로 기존331명(교구선거인단 250명+종회의원 81명)에서 총 106명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종단 쇄신위원회가 제시한 선추천, 후선출 제도 경우 먼저 총무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구총회에서 직접선거로 1,000명 규모의 선거인단을 뽑아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다.

공청회는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에 대한 발표와 4가지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지며, 본사주지 1인·각 종책모임별 1인·비구니 종회의원 1인이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조계종 기획실은 종도들의 의견 수렴과 원활한 토론을 위해 사전의견을 접수 받는다. 접수는 우편과 이메일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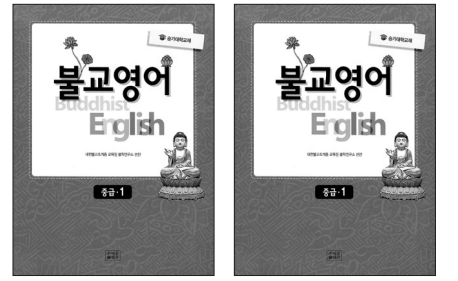
이번 공청회에 대해 기획실장 일감 스님은 "선거 제도 개선은 종도들의 뜻이기도 하고 제34대 집행부의 공약"이라며 "의견들을 취합해 제도 개선 방안을 입법화해 빠르면 오는 6월 종회에서 관련 종헌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주제들의 의견들이 모여져 종단 선거제도 개선에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학인 스님, '불교영어' 공부하세요

조계종 교육원 <불교영어 중급 1,2> 발간



조계종 학인 스님들의 영어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승가대학 교재가 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는 3월 28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승가대학 영어 교재인 <불교영어 중급 1,2>(사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 초급편을 발간한 바 있다.

<불교영어 중급 1,2>는 각 권마다 세 부분으로 나눠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불교영어 중급 1>은 불교 일상 영어회화와 △불교 교리와 수행 △사찰과 문화 등을 다루고 있으며, <불교영어 중급2>에는 천도제와 사찰의례, 한국불교의 고승 등을 다룬 한국불교 의례 챗터를 추가했다.

<불교영어 중급 1,2>의 강점은 당장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예문을 만들고 이를 연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사찰 안내부터 템플스테이, 전화 대화, 박물관 관람까지 상황 설정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참선, 염불, 절 등 수행과 불교 미술, 불교 윤리, 경전 해설까지 영어로 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했다.

신성민 기자

이와 함께 학인 스님들의 불교 영어 담어 암기를 돕기 위해 각 장의 주요 어휘들을 모아 단어장을 제작·수록했으며, 교재에 수록된 영어 회화 및 단어를 원어민들의 목소리로 녹음해 MP3 파일로 제작했다.

원어민 MP3는 조계종 홈페이지 총무원 자료실의 승가교육 부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불교 영어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다.

조계종 교육원은 "현대 사회는 급속한 세계화가 이뤄지고 있고 한국 거주 외국인도 15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스님들의 어학 능력 향상은 미래 승가교육의 과제"라면서 "불교영어 초급·중급 1,2는 스님들이 불교영어를 익힘으로서 한국불교 세계화의 인재로 발돋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주지 교체 놓고 팔공총림 '내홍'

성문 스님, 기자회견 열고 반발... 종단 "법대로 처리"

총림 지정 이후 첫 주지 교체를 앞두고 있는 팔공총림 동화사가 내홍에 휩싸였다.

동화사 소임자들이 3월 20일 임회에 앞서 현 주지에 대한 피소문과 잇단 언론의 오보들은 사실무근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임회에서는 '종정 진제 스님 주위에 괴한이 나타났다'는 제보로 인해 경찰과 사설경호원까지 등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동화사 집행부는 '진제 스님 주변에 복면을 쓴 괴한이 나타났다'는 사건에 대해 21일 정식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동화사 현 주지 성문 스님은 3월 24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일련의 사건에는 진제 스님이 차기 주지로 지목한 영광 스님(종정예경실장)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해 갈등의 불씨를 당겼다.

성문 스님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차대한 사중 인사 문제를 현직 주지인 소남을 비롯해 총림 주요 구성원들과 사전 논의 한 마디 없던 것은 총림의 기본정신과는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후임 주지로 지명 추천받기 위해 직접 공권력을 끌어들이 임회를 강행한 것은 총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불경스러운 행위"라면서 "이 장본인이 종정에

경실장 영광 스님이라는 사실에 충격과 함께 총림의 앞날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영광 스님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성문 스님의 기자회견 이후 루머들이 확산되자 조계종 총무원이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조계종은 25일 기획실장 일감 스님의 입장문을 통해 "동화사 주지 임명을 비롯한 각종 총무원행정을 종헌준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은 총무원의 소중할 책무"라며 "공정한 총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사실여부가 없는 주장은 자체 해 주실 것을 바라며, 종단 안정과 화합에 함께 하실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계종 정책모임 삼화도량은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동화사 주지 임명은 방장 스님의 뜻 따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삼화도량은 "성문 스님은 기자회견이 진제스님의 심중을 어지럽히는 부끄러운 작태였음을 깨닫고 발로 참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이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3월 20일 열린 임회에서 총림 차기 주지로 영광 스님을 지목했다.

(본지 3월 26일자 2면)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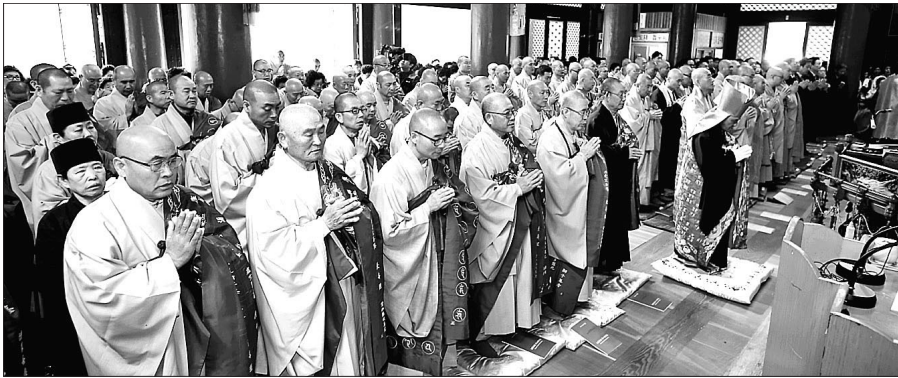
"수행·전법으로 종단 미래 밝힐 것"

천태종 제17대 총무원장 춘광 스님 취임법회 27일 구인사사... 2천명 참석

천태종 제17대 총무원장 춘광 스님의 취임법회가 3월 27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봉행됐다. 법회에는 조계종 일면 호계원장 스님을 비롯해 진각종 회정 통리원장,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쉐칭(學誠) 스님, 중국 영광사 장쟁(常藏) 방장 스님 등 국내·외 불교지도자와 정관계 인사 등 2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도용 종정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랫동안 선을 닦고 수행을 쌓아 그 공덕 인연 증생들에게 모두 회향하니 모든 신중들, 이도량과 대중을 옹호하고 깨끗한 믿음과 기쁨으로 함께 따르게 하는구나. 봄이 오면 천하의 풀이 절로 푸르니 한마음 한뜻으로 맑은 연꽃 피워내어라"고 설했다.

이어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수행과 전법"으로 종단의 미래를 밝히겠다"며 "승가와 재가의 교육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다양한 인재양



천태종은 3월 27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제17대 총무원장 춘광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성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장 용암 스님도 고불문을 통해 "총무원장의 직분은 최상승의 보리도를 구현하기 위해 세간법을 아우르며 만중생의 불심 증장을 도모하여 종단과 도량을 의호하고 내실을 기우어 가는 자리입니다. 춘광 스님은 오늘 총무원장 취임법회에서 막중한 직분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천태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에 봉공하며 국가 번영의 기틀을 다져나갈 것을 서원하오니, 그 서원을 두루 증명하시고, 그 원력을 길이 보전케 가피하소서"라고 부처님께 고했다.

불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축사도 이어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은 축사를 통해 "춘광 스님은 불교전통 문화에 남다른 관심으로 많은 후학들을 육성하셨다고 알고 있다. 스님의 원력과 실천은 천태종단은 물론 한국불교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리라 여겨진다"고 격려했다.

법회후에는 행사비를 절약해 단양 지역 불우이웃을 돕는 뜻 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이 자리에서 단양군 조성덕 사회복지협의회회장에 2천만 원을 전달했다.

김주익 기자



제58회 용왕대제 및 南北 통일기원 대법회

모든 공덕 불자님께 회향하옵고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에서는 제58회 용왕대제 및 남북통일 기원 대법회를 여러 큰스님과 신도님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일시 : 2014년 4월 14일(월요일) 음력 3월 15일 오전 10시

장소 : 해동용궁사 대웅보전

海東龍宮寺 住持 最庵 合掌

동참안내

- 大佛조성 천일기도 입재
- 초청법사 : 헤인 큰스님
- 축하공연 : 가수 김용임, 서진, 국악인 김영서 특설무대
- 용왕기도 : 3만원 영가 천도제는 무료봉행
- 온 라 인 : 부산 032-01-041244~3, 국민 119-01-0196-150 (예금주 : 주병남)
- 교 통 : 용궁사 버스 1,2호선 운행(승차장과 시간 홈페이지 참조요망) (1회 기사 011-584-9238)
- 접 수 처 : 전화 051)722-7744, 7755 / 팩스 051)722-7333